학생 80% "그래도 수능 중점 공부"

■ 2008 대입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논술 실질반영률 "궁금·불안"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9등급제를 골자로 해 대입제도가 변경되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학생들은 '수능'을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 수능 점수가 폐지되고 9등급제가 도입돼 수능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현재보다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대신 학생부에서 상대평가제, 9등급제가 시행되고, 논술 등 대학별 고사가 본격적으로 치러져 학생부와 대학별 고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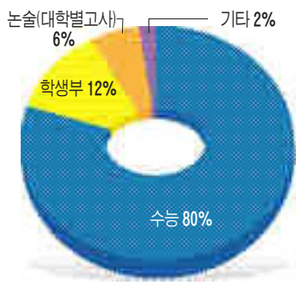
온라인 교육업체 비타에듀(www.vitaedu.com)가 자사 회원 1천31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시에서 중점 학습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1천54명)가 '수능'이라고 답했다. 반면 '학생부'와 '논술'은 각각 12%(158명)와 6%(79명)에 그쳤다.

'수능, 학생부, 대학별 고사(논술) 중 가장 궁금한 입시정보'를 묻는 질문에는 46%(607명)가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실질 반영률과 학생부 비중'에 대해 가장 궁금해 했다. 이어 33%(434명)는 '논술 실질 반영률과 논술준비 방법'이라고 답했고, 21%(276명)는 '대학입시에서 수능 비중이 실제 많이 줄어들었는가'를 궁금해 했다.

복수 응답을 허용한 '현재 가장 궁금한 2008 대학입시정보는 무엇인가'에 대해 학생들은 '2008 입시 대비 학습법'이 693명(53%)으로 가장 많았고, '수능, 학생부, 논술의 입시 실질 반영률'이라고 답한 학생이 642명(49%)에 달해 2008학년도 대입제도 변경에 대한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논술 드림팀' 워크샵 광주시교육청은 18일 광주고 음악실에서 광주지역 고등학교 논술교육동아리 교사 208명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가졌다. 이들 교사들은 올 한해 동안 35개 학교에서 5~6명씩 짝을 이뤄 학생들에게는 통합논술을, 동료교사에게는 통합논술 교육방법을 지도한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예비수험생 '08학년 대입 중점 학습분야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08학년도 대입
학생부	- 성취도 - (수우미양가)표기 - 석차 표기 - 교과별 평가	- 원점수 표기 - 평균 및 표준편차 병기 - 석차등급(9등급)표기 - 반영비율 확대
수능	- 백분위 및 표준점수로 성적 제공	- 9등급 성적만 제공
특별전형	- 고교 동일계열 진학 미흡 -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 특별전형(3%)	- 고교 동일계열 진학(어문계열은 외국어고, 국제계열은 국제고, 의학계열 제외 이공계열은 과학고 졸업생) - 특별전형 확대(5%) -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유도
미충원 이월	- 제한없음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국립대 3%, 사립대5%

유병화 고려학력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과거보다 수능 변별력이 낮아져 점수 경쟁은 완화되겠지만 등급별 커트라인에서 한두 문제 차로 등급이 떨어질 경우, 원하는 대학에 원서조차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수능 등급 간의 실제 점수 차이가 어떻게 될 지에 가장 큰 궁금증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 3월 출범

지방대학 중에선 처음 산학 맞춤형 과정 운영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오는 3월 출범한다.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은 국립대 중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 지방대에서는 최초로 설립되는 경영학 전문석사학위(MBA) 과정이다. 정부의 한국형 MBA 육성 계획에 따라 경영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1월 현재 총 13개 대학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 개원하는 곳은 전남대가 유일하다.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2년이며 특화분야로 산학 맞춤형 과정을 개설한다. 3~5월 중 첫 신입생 모집을 거쳐 오는 8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정원은 100명이며, 이중 40명은 주간 정규 석사과정(PAC MBA)으로, 40명은 기업체에 재직 중이거나 경력자를 위한 야간 정규 석사과정(PAC EMBA)으로, 나머지 20명은 특정 산업체 또는 산업 분야의 전문 경영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맞춤형 석사과정(CEMBA)으로 모집한다.

각 과목의 강의는 이론, 실제사례, 프로젝트로 구성해 운영하고 최소한 하나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고, 2년차 교과목은 영어강의를 하거나 해외 협력대학에서 이수하게 할 방침이다. 수업료는 학기당 5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은 앞으로 세계 유수 MBA 대학들과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제 시행, 해외 유명교수 초빙 강좌 개설, 해외 현지 수학기회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경영대학에서 오는 2008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AACSB(미국경영대학협의회)의 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유럽관리능력개발재단(EFMD)의 유럽품질개선시스템(EQUIS) 인증을 추진, 국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장희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 개설추진단장은 "광주·전남지역 전략산업, 광주 문화중심도시, 서남해안 개발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발맞춰 전문 경영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지식 재산' 최다 대학 'KAIST'

광주과기원은 특허 290건으로 4위

국내 대학들 가운데 '지식재산'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과학기술원은 네 번째로 많았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함께 처음으로 발간한 '2005 대학산학협력백서'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 국내 특허등록이 가장 많은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으로 총 1천28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대가 697건, 포항공대가 511건, 광주과기원이 290건, 인하대가 228건, 충남대가 206건, 연세대가 191건 등의 순이었다.

2005년 한해 동안의 특허등록 건수 역시 한국과학기술원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195건), 포항공대(122건), 한양대(78건), 연세대(67건), 인하대(67건), 성균관대(60건), 광주과기원(54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05년 교원 1인당 출원건수는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한국정보통신대학원 1.833건, 광주과기원 1.432건, 한국과학기술원 1.242건, 포항공대 1.134건 등의 순이었고 서울대 등 나머지 대학은 0.5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의 기술이전은 2004년 259건에서 2005년 591건, 이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2004년 31억8천400만원에서 2005년 63억2천300만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박명길 전남대 교수, 미세조류 실험실 균주 확립 성공

항종양제 등 신물질 개발 '탄력'

전남대 박명길(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환경 전공·적조 및 원생생물응용연구실·사진)교수가 군산대 이원호(해양과학대학 해양학과, 해양미세조류 연구실)교수와 공동연구로 작성한 논문이 수생 미생물생태학 분야의 권위 있는 SCI저널 중 하나인 AME(Aquatic Microbial Ecology)의 첫 특집 논문으로 게재됐다.

박 교수팀은 해양 미세조류 중 하나인 '디노피시스 아큐미나타(Dinophysis acuminata)'라는 생물을 세계 최초로 실험실 균주로 확립하는 데 성공, 이 과정을 논문으로 작성했다.

이 생물은 설사·구토 등 위장 장애를 일으키고 종양을 촉진하는 강력한 설사성 식중독 독소를 생산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생성하는 독소 중 하나인 '오카다익 산(okadaic acid)'은 종양연구에 중요한 시약으로 이용되고 있다. 박 교수팀이 실험실 균주 확립에 성공함으로써 항종양제를 비롯한 신물질 개발에도 널리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